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26차	일자	2021.06.21. 18:30	장소	당일 공지 (오프라인)
----	-----	----	-------------------	----	--------------

0 성원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X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9

<개회>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특이사항 없음.
경영경제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범대학	특이사항 없음.
사회과학대학	부정행위 근절 캠페인 진행 완료
약학대학	특이사항 없음.
예술대학	불참
의과대학	불참
인문대학	화장실 개선공사 진행사항 전달
자연과학대학	불참
통일공대	마스코트 굿즈사업 15일에 신청 받았고 18일에 완료.
동아리연합회	전동대회 예정. 전동대회 안건으로 동아리 승격 논의.

2 보고안전

1. 총학생회장단 보고

2. 집행위원회 및 산하위원회 활동보고

중앙집행위원회	(집장단) 전학대회 속기록 업로드 완료
	(집장단) 2분기 간담회 준비 중
	(교육자치) 교양과목 온라인강의 16주차 피드백 전달
	(일상복지) 기말고사 이벤트 추첨 예정
	(연대사업) 외부 제휴 사업 진행 중
산하위원회	(문화위) 축제 상품 포장 후 발송 예정
	(인복위) 사물함 철거/관리요원 선발 예정
	(인복위) 의혈규찰대 선발 예정

3 논의안건

1. 2학기 학사운영방식 관련

- 관련 협의체 개설 혹은 학사정기협의체
- 2학기 학사운영 관련 여론수렴 여부(설문조사 등)

총: 우선 서울대랑 숭실대는 이미 2학기 학사운영 방식을 전면 대면으로 채택이 되었다. 따라서 저희 학교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서 좀 요구할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요청할게 있으면 요청을 해야 하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고 학사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첫 번째로 2학기 학사운영 방식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협의체를 개설할것인지 아니면 학사정기협의체를 통해서 학사운영 방식을 논의할 것인지 양자택일이 될 것 같다. 우선 학사정기협의체는 내일 원래 소집이 될 예정이었으나 안성캠에서 아직 실기시험이 덜 끝났다고 해서 7월 5일 이후로 연기되었다. 관련해서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공지해드리겠다. 학사정기협의체 회의 소집일까지 고려를 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어차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학사정기협의체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싶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와 간담회가 많고 이것만 딱 따로 떼어내서 협의체를 개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사정기협의체의 논의 또한 다 학사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사정기협의체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사실 크게 상관은 없다. 논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7월 5일 이후에 있을 학사정기협의체를 이용을 하고 그러면 그 전까지 의견 수합이 다 되어야 한다. 7월 5일에 있을 학사정기협의체를 이용을 할꺼면 7월 5일까지 의견이 수렴이 있어야 하고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또 다른 협의체를 개설을 해야겠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네 2학기 학사운영 관련 설문조사 항목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일단은 2학기 학사운영 결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2학기 학사운영 결정과 관련해서 단위별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존과 같이 비대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학사운영 방식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여론 수렴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냥 제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경경.정: 우선 경경대 같은 경우에는 단운위 확정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일단 대면 비대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대면을 원하는 학우분들이 있다면 대면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내에 대한 일정 그 대면, 비대면 결정 일자에 대해서 언제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는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원룸을 구해야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해당 질문도 있으면 좋겠다.

사과.부: 서울대나 숭실대는 진짜 전체가 다 대면으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건지?

총: 우선 서울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숭실대도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5월 28일에 있었던 교무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침도 2학기 때는 모두 전면등교 시킬 것이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대가 그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수도권대학들도 서울대를 기준에 따라서 전면 대면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한다.

간호.정: 중앙대 본부는 어떠한 의견인지?

총: 지금 지난번 오프더레코드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도권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전면 대면으로 하고 싶다는 게 회의체의 중론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학교도 아마 전면대면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부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양한 안을 재보고 있는 것 같다 본부에서.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도 많이 변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2학기에는 기존처럼 전면 비대면을 유지한 안을 본부에서 가지고 올 것 같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든 변경된 안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사립대 협의회에서 대면얘기가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학교에서 저희가 가장 최근까지로 들은 것은 예를 들면 요일제가 됐든 시간제가 됐든 부분적으로라도 대면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정도의 의견을 전달했었다.

인문.정: 인문대학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최소한 8월 초까지는 확정을 해야하는게 경경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주거대책 이런 걸 마련해야 되니까 최소한 8월 초까지는 결정이 돼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전면 비대면을 할 것 같지 않다 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교수님들도 대면을 한다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대면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하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단순히 대면, 비대면을 물었을 때 그 결과 자체가 얼마나 잘 도출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대면을 할꺼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면을 할 건지를 좀 세분화해서 설문조사에 넣는 방식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을때 그 결과 자체가 학교본부에서 유의미하게 실제 학사를 정하는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별개이긴 한데 만약에 실제로 대면을 하게 된다면 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 대처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중앙대학교에서는 세 개의 검역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전면 대면이 됐을 때 저는 실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 크다. 수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등교를 할 텐데 그걸 세 개의 검역소에서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는 한 저는 학교 측에서 명확한 방역 대처 매뉴얼 같은 거를 좀 상황별로 제시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대면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 최악의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만약에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을 방문한다면 학교 자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상세히 학교본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총: 네 저도 우선 8월 초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방식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19의 양상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8주차를 기준으로 좀 학사운영 방식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전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면, 비대면이라는게 단순히 양자택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좀 구체화된 설문조사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만약 대면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학우분들의 입장에서 예상이 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도 함께 좀 수합을 해서 학교본부에 전달을 하면 학교본부도 방역대책 매뉴얼이라든지 확진자 발생시 매뉴얼이라든지 좀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범.정: 사범대 질문 하나 드릴게 있는데 방금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책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학교같은 경우는 신종 PCR검사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런 검사가 있기 때문에 학우들도 좀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그런 체제나 기술 같은 건 도입이 안 되어있다.

총: 제가 알기로는 그 연세대학교도 PCR 검사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3,4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갑자기 늘면서 PCR이 좀 수그러든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저희

중앙대학교도 서울대가 시행하는걸 보고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긴 했다. 그런데 아직 다른 대학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학교본부도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다. 근데 하자면 할 것 같다.

사범.정: 네 감사하다.

인문.정: 근데 신규 PCR검사가 도입이 됐을 때는 타 사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도입이 돼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면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학우분들이 학교에 오시는 것 자체를 일단 방지하는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돼야 하고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신종 PCR이나 그 외의 다른 방법들을 좀 조속히 생각을 해내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검역소는 사실 크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총: 지금 PCR 검사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저도 제 개인 의견 하나를 덧붙이자면 저희가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대면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의심증세라는 게 본인이 자가진단을 해서 처음 증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받아서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뭔가 증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캠퍼스를 오면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출결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대면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래서 차후에 그걸 논의할 데가 있으면 함께 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

총: 네 우선 정리를 하자면 학사정기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를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되 좀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까지 모두 의견을 물은 후에 학교 본부에 요구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총 정리가 된 것 같다. 자세한 설문조사 항목들은 단운위 의견들도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운위 공지방을 이용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합하겠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경경.정: 추가적으로 서울대랑 연세대는 2학기 강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학생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조사를 해서 저희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그러면 또 단운위 의견도 한번 수렴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다.

2. 등록금 및 재정정보 관련

- 전학대회 결의안 미회신 대응
- 2021-1학기 등록금환불 요구 여부
- 요구의 방향성

총: 전학대회 때 결의안을 바탕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회신이 안 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공문을 발행했고 발행한 공문은 제가 공지방에 올려 드렸다. 해당 공문을 재발행해서 기획팀에 넘겼고 우선 간담회 소집이 늦어진다면 자료를 선제적으로 달라 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이다.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팀이랑 기획팀에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 받을지는 미정이다.

인문.정: 준비하는 자료들이 저희 질문에 대한 자료들인지?

총: 그렇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서 논의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은 게 있는데 저희가 저희 선에서 마지노선을 좀 잡아야할 것 같다. 이때까지 안 오면 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라라는 전반적인 큰 틀은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을지 아니면 좀 더 기한을 늘려서 다음주까지

유예시간을 돌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인문.정: 사실 이게 작년 2학기 등록금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어지는 거라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빨리 자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호.정: 간담회 때도 늦어진 자료가 아닌지?

총: 네 뭘 말하시는 건지?

간호.정: 간담회

총: 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

간호.정: 그러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애초에

총: 그러면 이번 주?

경경.정: 이번 주까지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범.정: 사범대도 이번 주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총: 다들 이번 주까지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번 주까지 회신이 안 오면 뭐 저희가 연서명을 진행할 수 있겠고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뭐 사실 이 안건도 전학대회 라는 큰 의결기구에 서 결여가 된 사안인데 연서명과 릴레이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큰 효력을 가질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학우분들이 봤을때도 저희가 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대개 동의하고 근데 그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운위의 명확한 입장 표현이 제일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등록금 환불문제가 학생사회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중운위 차원에서 어쨌든 입장표명을 명확히 하면 학교와 중운위가 입장차이가 명확하다는 것을 학우분들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화살자체가 학교로 돌아가니까 저희가 훨씬 더 수월할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표명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학우분들의 공감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캠페인이나 릴레이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총: 저는 입장표명과 릴레이가 같이 진행됐으면 한다. 왜냐하면 입장 표명을 하고 어떠한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중간 시간에서 학우분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연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저도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연서명과 릴레이를 같이 진행하면 혼란을 야기할지?

경경.정: 저는 개인적으로 연서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게 릴레이는 아무래도 SNS 상으로 하다보니까

총: 눈에 띄지 않는다.

경경.정: 네 눈에 띄지 않아서 연서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인문.정: 저도 동의한다.

사과.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연서명이 학우분들께 얼마나 공감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학우분들의 입장에서는 세 번이나 연서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연서명을 함으로써 지금 학교본부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뭔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연서명이나 캠페인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던가 입장문 표명만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총: 저도 사과대 부회장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 것이 중운위 라는 단체가 전학대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을 가지고도 학교본부와 교섭을 못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관철 못시킨다면 중운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학우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된다. 저희의 무능을 방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과대 부회장님의 의견에도 동감을 한다.

간호.정: 간호대 의견 내자면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입장표명이 공문 말씀하신거랑 크게 답변을 듣기에는 부족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공문에서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답변을 듣고 요청을 한다는 건데 그게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본부에서 늘 얘기하듯이 궁금하면 찾아오라고 하면 찾아가는게 사실 맞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입장 표명을 하지 말자는건 아니고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은 가장 답을 얻기에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총: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등록금 반환을 주제로 운동을 할때 중운위 사람들이 본부로 찾아간 적이 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중운위가 학교 본부 201관을 방문하는 것이 어떤가 저희의 요구와 입장문을 함께 동봉해서 서류형식으로 좀 제출하는 그런 제스처를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총: 저도 앞 두분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연서명이나 이런 운동을 추가적으로 할 때 그게 적절한 시기인가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7월부터 방학이기 때문에 연서에 대한 동력이 학기중처럼 많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이게 동력이 떨어져서 연서명 참여율이 적다면 그 입장문 혹은 그 연서명에 해당하는 문서 자체의 효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입장표명을 하고 방금 사례를 드신 것처럼 중운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는게 낫지 않나 대외적으로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

경경.정: 경경대도 연서명보다는 중운위 회의록 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총: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일단 이번 주까지 유예를 가지고 이번 주까지 회신이 오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에 항의 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이번 주 회신이 온다고 했을 때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중운위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추후 중운위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한다.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도 저희 중운위가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주에 안 오면 항의방문 월요일에, 이번 주에 오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운위 논의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지?

부총: 네

총: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환불 내용인데 우선 제가 신문을 하나 봤다. 제가 대화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냥 그거다. 중앙대에 돈이 없다는 게 대외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기사이고 학교에서 돈이 없다고 했다.

인문.정: 저 여기 있는건 알겠는데 학교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이다. 학생 대표자로서 사실 2020학년도 2학기, 그리고 올해 1학기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똑같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고 학교 수업자체도 실험, 실습과목을 제외하고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학생 대표자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이제 실제로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협상을 들어 갔을 때 하는 거고 일단 학생대표자 차원에서 일단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간호.정: 저는 이것을 협의체가 구성되면 20-2학기랑 21-2학기랑 학교 입장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문제를 들고 가서 들어보야 확인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환불 요구를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단 그래도 다른 학기기 때문에 학교가 1학기 때는 왜 못했는지도 들어보야 한다.

인문.정: 어쨌든 간에 등록금환불협의체가 열릴텐데, 거기서 자료를 받아보야 요구를 할 수 있다. 1학기 때 상황이 어땠고 1학기 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해야지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받아보야 하지 않을까. 1번으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가 열렸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부총: 저는 이 문제에 있어 개인적인 고민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등록금환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거를 가지고 들어간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고 학교 내에서 대면하기 때 했어야 했을 제반활동을 누리지 못했다가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이 감소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 이렇게 세 가지 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두 번째 논거인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번 학기까지 등록금환불을 요구를 하면 1년 반 학기 정도를 같은 의제로 들고 가는 건데, 그 의제의 흐름이 21-1학기에도 남아있을 것인가.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금환불을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 이 논리가 계속해서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지표가 저는 이번 상황에서 좀 불분명하지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가장 큰 논거를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 가계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만약에 등록금환불논의를 했을 때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논거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전에 보편지급을 말한 것과는 주장이 달라져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인문.정: 반박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3번은 가장 후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이유가, 개인적 고민이라고 하셨지만 계속 똑같은 상황의 낮은 교육의 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완전히 똑같은 수는 없다. 그런 상황에서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것이지 가계가 어렵다 학생들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교육의 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인문대학에 실험실습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론수업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낮은 수업의 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 했는가 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 질이 대면일 때보다 확실히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다.

경경.정: 경경대 의견 내자면 일단 경경대는 지금 등록금환불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게, 수업의 퀄리티가 달라졌다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표를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질 것 같으며, 작년 비대면과 다르게 올해 비대면은 일부 실험실습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대면일 경우와 작년 비대면, 올해 비대면의 세 가지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비교 후에 등록금환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작년 비대면에서는 등록금환불요구를 할 만한 근거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교에서 나올 이야기들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해야 요구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에 관련된 학우분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한 것이, 작년 비대면 등록금환불 요구때도 학교에서 강의평가점수가 좋아졌다고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과.부: 저는 부총학생회장님 일부 말씀해주신 것에 동의를 한다. 일단 학생대표자로서 등록금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이야기해서 좀 수업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이 늘었고, 관련해서 사실 학우분들이 대면보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하는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비대면이 좋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 강조는, 이번 학기 등록금환불을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실 1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수업이 익숙한 학우분들도 계속 텐데 학교 시설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논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학우분들이 많을지 잘 모르겠어서...

부총: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1학기 등록금환불요구를 위해서는 명확한 요구 근거를 갖춰야 하고, 근거 성립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기존에 했던 설문조사의 방식이든, 각종 자료를 취합하는 그런 자료마련을 통해서 요구의 방향성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모아진 것 같다.

총: 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보다는 저희가 먼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저희들끼리, 중운위 내에서도 정립이 된 뒤에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가 너무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경경.정: 강의평가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의평가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는지, 필요한 게 저희가 아무리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해도 충분히 강의평가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강의평가를 근거로 의견을 낼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저희 측에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호.정: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동의는 한다. 일단 협의체에 들고 가려면 문제제기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원래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조사를 하고 들고 가는 건데, 다 이야기 하시는 게 근거가 부족하고 그런거면 사실 문제제기가 없으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총: 보통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고 교섭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제기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통공.부: 개인적인 궁금증이다. 공대 공약 중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강의평가 외에 8주차에 자체적으로 강의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다.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저희가 2020년도 1학기 때의 강의평가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면보다 비대면이 소통이 부족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비대면 중에도 재탕을 하는 분들도 있어서 대면보다는 낫겠지만, 솔직히 2021년도 1학기 강의평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만큼 혹은 학교와 교섭을 하는 데 사용 가능할 만큼의 결과를 도출할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설문

조사를 하는데 원하는 만큼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일단 생각보다 학우들의 의견이 나쁘지 않으면 저희는 학교에 이걸 저희 입장이라고 내세우기 그렇지 않나. 그랬을 때 중운위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저는 물론 등록금 내는 사람 입장으로 환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회의적이다. 작년과 크게 다른 방향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도 없다고 하고. 조금 회의적인데 저희가 만약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총: 좋은 의견이시고 내부조사가 끝나고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할 때 좀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그런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근데 충분히 좋은 내용 말씀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절대평가나 졸업요건 일시폐지가 비대면 학사운영의 보상책으로 마련이 된 것은 아니고 교육의 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이다. 근데 학우분들은 도리어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비대면을 좋아하시지 않나,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학점이 올라갔다든지 오히려 효용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경경.정: 의견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하실 때 저희가 등록금환불에 대한 근거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 등록금 환불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력 약화를 학교에 대한 근거로 낼 수 있나라고 근본적으로 궁금증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저희는 이 부분이 아니라 수업의 질 약화와 비대면 학사로 인한 학교 시설 이용 문제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력 약화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부총: 제가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굳이 이유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였고 제가 생각하는 등록금환불의 이유가 되진 못한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요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우리가 이전처럼 학생 개인이 느끼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의제를 끌고 가기에는 동력이 약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등록금환불을 요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교육의 내용이 어땠든 간에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형식 자체의 절대적인 물리적 차이라는 게 있고, 시설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등록금. 시설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전기비를 얼마를 냈다 이런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학교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대면과 비대면의 물리적 차이로 의제를 끌고 가야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지 학생 개인이 느끼는 교육의 질은 비대면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근거가 좀 부실해졌다. 이 시점까지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경경.정: 그럼 아까 경제력 관련해서 말씀하신거는 작년과 다르게 근거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부총: 네.

경경.정: 해당 부분 동의하는 바이다.

간호.정: 간호대 질의 있는데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총: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 의견을 여쭙보려고 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을 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하겠다.

예술.정: 내부조사라는게

총: 중운위 차원에서 학교본부랑 계속 교섭을 한 뒤에 명확한, 가시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희끼리 조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꺼냈던 것이다. 어떤 자료를 조사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다.

경경.정: 저는 대면의 경우와 작년 비대면 경우, 그리고 현재 세 부분으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내용에서는 학교 시설 미이용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지표가 있다면 그 내용이 필요하고, 수업의 질 관련해서 학우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눠서 생각했다.

총: 시설 이용 지표라는 것이

경경.정: 도서관은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처럼. 졸업생은 돈을 내고 이용하니까 빼고 재학생과 재적생을

인문.정: 도서관은 크게, 이용이 불가능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 전반적인 시설, 건물에 대한 시설이용지표를 수치로 파악하는 게 가능할지

총: 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그 다음에 강의평가의 차이 같은 것은,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강의평가를 제대로 하는 학우분들이 계실까. 그게 엄청나게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체크하는 학우분들도 꽤 있다라고 생각한다. 강의평가를 가지고 수업의 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용있는 지표인지는 의문이 있긴 한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밖에 없다면 받아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해버린다면 학생들을 도리어 욕 먹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강의평가 점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경.정: 강의평가를 저는 확인했으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는 강의평가를 근거로 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설이용도 인문대 회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다.

간호.정: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어떤 항목에서 쓰이지 않은 부분을 학교에서는 이런 곳에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사실 학교에 설명도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너무 범위가 크다고 생각이 든다. 자체 조사를 하고 내부 판단을 내리는 게 일단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다. 어차피 자료를 받아보아야 하는 거면,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중운위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들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 저는 그 문제제기가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문제제기 방식이 환불협의체가 아니라 그냥 실무진과의 면담 자리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환불협의체를 개설하고 학우분들께 이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했으나 내실 있는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중운위의 무능과 의식차이가 학우분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담 자리 정도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간호.정: 어디에 쓰였다든가 그런 설명이 있는 후에 우리가 봤을 때 똑바로 안 쓰였는데 라는 내부적 차원의 문제제기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말씀드린다.

경경.정: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용 정리하는데도 시간을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내용은 학교 측에 전달을 해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사과.부: 내부조사를 위한 항목들이 내부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7월 5일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은가?

총: 왜 기다려야 하는지?

사과.부: 이날 학사정기협의체가

총: 학사정기협의체와 등록금환불은 다른 의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내부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협의체를 열지 말지 판단을 한다는 건지

총: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부총: 지금 내부조사는

총: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의미다.

부총: 등록금과 학교 비대면에 대해 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빼서 보자는 게 내부조사라고 표현을 하신거다.

인문.정: 내부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부총: 내부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상황을 가지고 요구의 여부나 방향성을 정하자는 거고, 설문조사를 시행하자는 이야기다.

경경.정: 그러면 저희 요구에 따라 설문조사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서, 내부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확정한 다음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총: 맞다.

사과.부: 그렇다면 사실 설문조사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은지? 내부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는데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이 필요 없다고 대답을 하면 사실 저희는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순서를 바꿔서 차라리 학생들에게 등록금환불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을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아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협의체에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인문.정: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 점인데, 내부조사를 할 내용이 어차피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 내부에서 또 진행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계속 이해가 안 되었다.

간호.정: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 쪽에서 움직일만한 근거가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생긴다고 이야기하시는거 같고 이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료를 해석해서 움직일 근거를 마련하자는 말인 것 같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자료 해석을 하는 걸로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좀 듣는게 필요하더라고요...

총: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논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되는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환불가능성이 적고 환불이 진행이 되었을 때도 환불금액이 적을 것이라는 것들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근데 설문조사를 진행해놓고 실컷 학우분들 의견을 다 수렴해봤는데 또 지난 2학기처럼 무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중운위의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인문.정: 저는 생각이 다르게 학우분들이 중운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중운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린 거고, 퍼센테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학교본부에 비난을 할 일이다. 생각의 차이일수도 있는데, 중운위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등록금환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등록금환불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면 학우분들이 그것에 대해 비난을 할까. 그래도 학생대표자들이 등록금환불을 위해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의 비판점을 보면 중운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냐는 비판보다 학교에서 1%밖에 안주냐는 비판이었던 것 같아서

경경.정: 저는 자료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논의되었던 게 근거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체계가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저희조차 기틀이 안 잡힌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저희의 근거의 틀을 만들고 그에 대해 학우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우분들에게 설문조사해야 설문조사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과.부: 저는 해석 먼저 하셔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수입 같은 시설 지출이라든가 확인하려면 사실상 학교의 지표도 필요하지만 학우분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도 필요하다.

사과.부: 저는 사실 강의평가도, 학우분들이 20,21학번이 주 학년이 된 상황에서 대면을 경험한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강의평가를 통해서 대면과 비대면을 비교한 결과가 설문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강의평가가 교육의 질 뿐 아니라 정말 교수님들의 수업방식 문제에 대해서, 그것보다 교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도 강의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자료조사 상에서 감이 안온다. 차라리 학우분들께 대면과 비대면을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느꼈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20,21 학번 분들은 대면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교육의 질을 이야기하려면 저희가 대면수업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대면과 비교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됐다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 학우분들의 대다수는 대면수업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데 이런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감이 안와서

간호.정: 사과대 의견에 아까부터 동의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데 사실 2020-2학기 요구안과도 관련이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게 이 부분도 포함된 얘기인거 같고, 학교가 '우리가 돈을 흥청망청 안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라고 있는 거지 그거를 같이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학교의 설명을 들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학우분들도 등록금 똑바로 안 썼으면 똑바로 안 썼네라고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뭔가 간담회 자리가 열린다고 하면 대표자들이 가지 않나. 대표자들이 가는 곳, 일반 학우분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대표자들한테도 안 들고 갔으면 좋겠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들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같이 세부내역을 배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 딜레마다. 자료 해석을 먼저 할지, 설문조사를 먼저 할지. 자료해석을 먼저 하자는 쪽은 설문조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설문조사를 먼저 하자라는 분들은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다. 사실 뭘 먼저 하던지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도리어 설문조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좀 감이...

경경.정: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예시로 이거 밖에 생각이 아직 안 나서 시설 이용이랑 수업 질 관련한 내용을 말해서 자료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문조사 양상을 작년과는 다르게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자료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설문조사에 반영을 해야된다고 말씀드린 거라서,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조사라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 절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시설 이용이랑 수업 질 관련은 뭔가 설문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조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추후에 생각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자료조사를 한다고 보면 어떨지?

인문.정: 그니까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조사인 것까지 다 이해가 되었는데, 결국 그 자료 조사를 할 때 어떠한 자료를 요구해야 할 지 저희가 정리해야 할 것 아닌가. 결국 저는 그게 설문조사에 반영될 문항일 것 같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를 먼저 하나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자료조사를 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진행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자료조사에 대한 감 자체가 사실 크게 안 잡힌 상황이다. 설문조사를 하려는 것은 기존과 다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저희가 근거가 달라졌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근거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자는 말씀이시지 않은가, 그럴 때 이제 그게... 다시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

약대.정: 어쨌든 내부 조사나 설문하는 거나 총학분들께서도 생각하시게 너무 약하다는 게 있으신 거 같다. 어쨌든 쟁점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사 자료 링크를 읽어보고 왔는데, 전체 예산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닌가, 그만큼을 비대면이 되었음에도 똑같이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지금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백만큼을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운다는 게 사실 그 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뤄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을 차액만큼을 환불하자라는 쪽으로 주장하게 되면 굳이 여기서 안하고 좀 정량적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차액만큼 이제 환불을 해라라는 쪽으로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서 70%정도, 대면이었을 때 전체 예산안의 70% 정도가 중앙대학교의 총예산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왔다. 지금은 수익이 줄었으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70%에서 80%, 85% 이렇게 늘었을 거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럼 이제 15% 만큼의 비율이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충당이 된 상황이니까 그 돈만큼을 환불을 하는 쪽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

총: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저희가 한 해 예산이 4,500억인데 지금 4,500억 중에 등록금 회계가 60%고 비등록금 회계가 40%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등록금 회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등록금 회계로 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차액만큼, 그 보전액만큼 환불을 하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 학교가 40%의 비등록금 회계로 저희 60% 이외의 학교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거기서도 많이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한다. 그 40%에서도 분명히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논리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경경.정: 저는 추가적으로 더 자료조사,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설문조사가 전체 학우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동시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조사를 동시에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설문조사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자료조사 과정에서 혹여나 추가 설문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그 간극을 조금 줄이는 방안이 자료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선택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 자료조사를 말씀 드린 것이다.

총: 그니까 지금 다 논거가 변했고, 다른 논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근데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하게 된다면, 똑같은, 그니까 작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와 양상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게 과연 유의미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크고, 특히나 지난 2학기 때 시행한 지난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지난 1학기 등록금 환불 때, 뭐가 문제였냐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2등이 성적 장학금 감면이었다. 근데 그러면 이번 2학기 때에는 뭐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뭐가 보완이 되어야 하나 라는 질문에 답변 중에는 성적장학금 원상복구가 없었다. 이것도 저는 모순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것들이 상당수 보였고, 저희가 아무런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생각을 좀 정립을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선에서 학우분들의 입장을 듣는 것이 더 절차상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부총: 저도 덧붙이자면, 이게 자료조사가 저희가 공개적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저희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받자는 것인데, 이것을 말 그대로 언제 시행 될 먼저 시행해도 큰 문제의 소지는 없다만, 자료조사를 먼저 할 때는, 예를 들면 저희가 미리 파악한 자료와 이후 파악한 자료의 결과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맞지 않는다면 설문조사에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항을 따로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먼저 하는게 낫겠다는 제 판단이다.

간호.정: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전체 단위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움직일 때 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도 전 단위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료조사를 내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인데, 그 자료 해석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료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교에 설명할 자료를 받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도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볼지도 보이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자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렇게 설명을 먼저 듣고 자료 해석을 하고 설문조사를 할지 말지를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내부적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려면 듣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듣고 자료해석을 내부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의 여부를 다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갈릴 것 같으면 의결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하면 될 것 같다. 자꾸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빙빙 도는 거 같아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런 식의 작업으로 학교에 입장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 결정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과.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학교 본부에 자료 설명을 저희가 요구를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가 등록금 환불을 이번 학기에 요구하려고 하니까 설명이나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왜 자료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던 건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자료조사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저희가 중운위 차원에서 학교 측에 등록금 환불이나 설명, 자료조사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고 했는데, 뭔가 안 해도 되면 사실 학교 본부한테 이게 괜찮냐는 사실은 자료 조사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본부 측에 이걸 요구를 하려면 등록금 환불을 하겠습니까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료조사를 먼저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부총: 저는 그걸 요구를 할 때 학사 만족도라든지, 대면과 비대면의 교육 변화 조사 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하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정: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가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자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요청을 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인문.정: 전부 다 이해를 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지? 그러면 자료조사를 해서 그 자료조사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이걸 통해서 설문조사의 조항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 아닌가. 설문조사를 할지 말지. 근데 만약에 내부적 판단으로 했을 때, 이 내부적 판단이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할지 말지까지 가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어떠한 질적 차이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이러한 지표들을 보았을 때 등록

금 환불 요구 근거가 떨어지네 했을 때 그럼 요구하지 않는다 결정까지 이 자료조사를 통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중운위가 등록금 요구를 안 한다, 그게 학우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가 제가 여태까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 자료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문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걸 봤을 때의 어떠한 결정까지 갈 것인가가 해결이 안 되서. 그럴거면 차라리 똑같이 자료조사에서 확보하는 내용도 그렇고 학우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어쨌든 중운위가 활용해야 할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는 꼭 설문을 해야 하나는 의문이 있어서.

경경.정: 저는 설문조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 대표자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무조건 진행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료조사는 설문조사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저희가 내는 근거에 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조사에 대한 내용은 이 근거를 뭘로 정할거냐에 대한 근거에 대한 조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저희가 근거를 수업의 질, 시설의 이용,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표를, 시설 이용 내용과 수업 강의평가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계속 단운위나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다른 근거가 나온다면 그거에 대한 또 학부본부에 대한 조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다른 조사 방법을 이용해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근거면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일면 설문조사 내용에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학우분들이 만약에 등록금 환불요구를 안 하신다면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가 등록금 환불을 원하지 않아요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진행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인문.정: 네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부분을 다 해결해주셔서. 저는 어디까지 가느냐가 궁금했거든요 이 내부조사가.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긴 하는 거니까.

총: 저는 이번에 환불 의제가 지난 1학기 2학기 때에는 '등록금을 환불하라'였다면, 이제는 거기서 추가해서 등록금을 환불해라, 근데 학교 사정이 좋지 않으면 빠르게 학생들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을 해라라고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학우분들도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당연히 대표자니까 학생들이 요구를 한다면 해야 된다. 저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환불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인문.정: 저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중운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학우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을까봐 그 부분을 걱정한 것이었다.

총: 그리고 학교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 중운위가 대변할 필요가 아니라, 저는 하면 안 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가 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간호.정: 동의한다

통공.부: 저도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저희가 학생 대표자다 보니까 학우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지 않은가. 다들 학교가 돈이 없다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정말 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없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다. 이 자료가 대외비다 보니까, 학우분들이 확인을 못했고, 전학대회에서 그런 자료들을 학우들한테 설명을 해달

라는 결의안을 냈는데 회신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좀 황당한 게 학교가 돈이 없으면 학우들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돈이 없다고 비등록금 회계가 줄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해명.. 해명이라 해야 할지? 해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환불을 굳이 요청하지 않을 거 같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물론 설문조사도 따로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입장을 내리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다. 납득할만한 자료들을 학우들한테 설명을 하면 저희 역할도 좀 줄지 않을까. 그래서 총학생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한다.

경경.정: 그래서 이제 단운위 회의를 하지 않나. 회의할 때 근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총: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기조지 않나? 그러니까 먼저 자료를 조사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또 환불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수립을 하고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한다. 따라서 제가 회의 끝나면 게시글 하나를 만들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공문을 발행하도록 하겠다.

간호.정: 어떤 공문인지?

총: 설명회를 진행해라, 아니면 자료를 달라 라는 것들이 될 수 있겠다..

인문.정: 이걸 단운위에서 논의하고 얘기하면 되는 게 맞는지?

총: 네. 빨리 주시면 제가 빨리 공문을 발행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빨리 문의를 할 수 있고.

경경.정: 저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할건지를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총: 빨리 해야겠지 않나? 다음 주 중으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경.정: 다음 주를 목표로 잡는...

총: 다음 주 주중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할 게 많겠다. 그리고 추가의견 있으신지?

인문.정: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해주신 게 생각이 나서, 요구의 방향성에 있어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때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가 직접 나서서 재정 설명을 요구하자라는 명확한 중운위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총: 네. 추가 의견 없으시다면 기타 안건으로 넘어가겠다.

4 기타안건

상정된 안건 외에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새내기새로배움터 및 리더스포럼

- 단운위 의견 수렴 (차후 중운위 회의 안건 상정)

총: 새내기 새로 배움터와 리더스포럼이다. 리더스포럼과 관련해서 담당자분과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일단 1차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중운위 1박2일이나 2박3일 숙박 형태의 리더스포럼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중운위가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7월 달 중에는 2학기 단위요구안을 송부하고 또 8월 중으로 답변을 받고, 리더스포럼때는 대표적인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지난 1학기 때도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차기 중운위 회의나 차차기 중운위 회의 때 단위요구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운위 내에서 단위요구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경우에는 이게 여름방학 때 숙박형태가 가능하지 않으면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2학기 중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인문대.정: 인문대에서 이야기 해봤는데 새터 할 때는 원래 공개입찰을 한다. 공개 입찰과정이나 지금 준비 단계를 보았을 때 사실 인문대학은 지난번에 논의를 해오라 하셔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이나 공개입찰 과정을 거쳤을 때 지금 여름방학 내에도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내렸고, 인문대학은 그래서 새터 진행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개입찰 과정만 해도 거의 1달 정도 걸리는데, 그럼 최소 7월 말인데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이 8월 말에 진행한다 쳤을 때 2달인데, 그 2달 동안에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크고, 공개 입찰까지 해서 확정되는 단계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새터의 여름방학 때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인문대학은 전체적인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

총: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는 단과대 회장이 아니라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학기 가을 축제를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대면 축제 때 동아리 연합회도 그렇고, 연합회 뭐 한다 항상. 그거랑 그 축제 기간에 각 단과대학 별로 설명회를 하던지 그렇게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에 사시는 분들 일부 대면이라면, 올라오실 거 아닌지. 축제를 즐기려 하면, 그걸 좀 이용을 해서 같이 새터 개념의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인문대.정: 어, 혹시 그러면 단과대에서 축제를, 단과대 축제도 해도 되는 건지?

총: 네. 그건..

부총: 단과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된다 그건..

총: 어차피 2학기 때는 저희도 할 거라서

사과.부: 확정이신지?

총: 대면축제 말하는지? 하이브리드로. 그니까, 모르겠다. 일단 제가 문화위원장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뼈광에 작은 무대라도 설치를 하자라고 논의가 된 건 맞는데,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큰 무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일단 할 거다.

부총: 아무튼 대면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총학생회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있다 정도로...

간호.정: 그러면 새터 시기를 어떤 걸로 이해하면..

총: 저희 총학생회 축제랑..

사과.부: 축제가 2학기 중반 아닌지?

총: 맞다.

사과.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여름방학의

부총: 방금 총학생회장님은 새내기 행사의 대체안 중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여름방학 내에 숙박형 새터를 진행하기에는 방금 인문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총: 이제 새터 이름이 아니겠다 이젠

간호.정: 최대 3개월이라는 말도 들었고 지금 백신 7,8월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총: 저희가 9월 말에 축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과대 축제도 그렇고, 총학생회 축제도 그렇고, 동아리연합회 축제도 그렇고, 새터 대체 행사도 그렇고, 좀 같은 시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 따로따로하면 좀 화력이 적을 것이다.

인문.정: 별개인데 총학생회 축제와 단과대 축제를 같이 하는지?

총: 보통 총학생회 축제와 단과대 축제 사이 일주일 기간을 두고 전후로 진행을 한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인문.정: 그러면 예산 부분은 학교 측에서?

총: 그러니까 대면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제가 추경을 요청을 할 거다. 그러면 작년 대면 축제만큼의 예산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상당 부분은 보전이 될 수 있다.

간호.정: 지금은 하나의 의견으로만 들으면 되는 건지?

총: 맞다. 제가 강제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사과.부: 그러면 새터를 진행을 안 하면 새내기 예산안은 어디로

총: 그러니까 그걸 대체 행사 때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대체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면 된다.

부총: 그러니까 저희가 조만간 새터를 안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 예산을 풀어서 사용 대책을 정하시면 된다 단위별로.

총: 그러니까 일단 예산팀의 입장은 좀 단과대가 좀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간호.정: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통일되어야 예산안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실 맞다.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또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겠다. 다르게 반대 입장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학교는 그런 거다. 같은 6만원을 어차피 줄 건데, 어느 단과대는 6만원의 효용을 못 느끼면 좀 단과대학별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6만원의 효용을 맞추자라는 취지에서 예산팀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

간호.정: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총: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호.정: 그게 사실 베스트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깐.

총: 그러면 저희가 또 논의를 해보자 새터 관련해서. 단운위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봤자 의미가 없을 거 같고,

부총: 아무튼 이 안건의 주된 요점, 단운위에서 논의를 해오라. 그거였다.

경경.정: 질의가 있는데, 지금 새터 비용이 원래는 1학년 새내기를 위해서

총: 6만원이다.

경경.정: 네. 이번에 저희가 새터 대체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1학년으로 국한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지?

총: 작년도 예산을 숙박형태의 새터가 진행이 되면, 20학번까지 6만원을 지원해준다 했다. 그런데 지금 숙박형태가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학번들에 대한 6만원은 보존은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21학번에 대한 6만원을 4만원을 21한테주고, 2만원을 20한테 주고 이걸 자체적으로 하시면 된다 단과대에서.

간호.정: 그게 자체적으로 되는지?

총: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다.

간호.정: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목적 변경을 하려면 변경 과정이..

총: 솔직히 새터도 그렇지 않나. 새터 6만원씩 가더라도, 재학생들도 혜택을 다 받지 않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그 6만원이 딱 신입생들에게만 사용되었던 적은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도리 있게 사용하시면 된다.

사과.부: 근데 새터 시기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금토일 이렇게 갔다 올 수도 있는거 아닌가. 시기적으로 어디까지 고려를 하시는 건지? 10월?

총: 새터 한 10월 달에 갈 수 있을지?

인문.정: 20대 백신을, 제가 보건당국에 알아본 결과 9월 달부터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럼 최소 1,2차 까지 하면 최소 10월이 넘어가야 되는 거라 새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11월달에 선거가 들어가지 않나.

간호.정: 제가 계속 말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총: 회의 끝내겠다.

<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